

# 「현단계」 「시대와 철학」 「근대문학연구」 등 창간

우리문화와 사회의 다양한 모습과 학문연구의 방향을 학술적으로 규명하고 새로운 시각의 논리를 전개하는 학술무크지 3종이 비슷한 시기에 창간돼 시중에 나왔다. 5월~6월초에 나온 이 무크들은 80년대 한국사회의 성격을 다방면의 논쟁을 통해 조명하는 「현단계」(한울계 420면 4500원), 서구철학 일변도를 떠나 해방이후 한국철학의 흐름을 실천적으로 재해석하는 「시대와 철학」(까치계 232면 2800원), 근대문학연구 방법을 재검토하며 개화기 문학의 장르별 가치를 검증하는 「근대문학연구」(지학사계 340면 3500원)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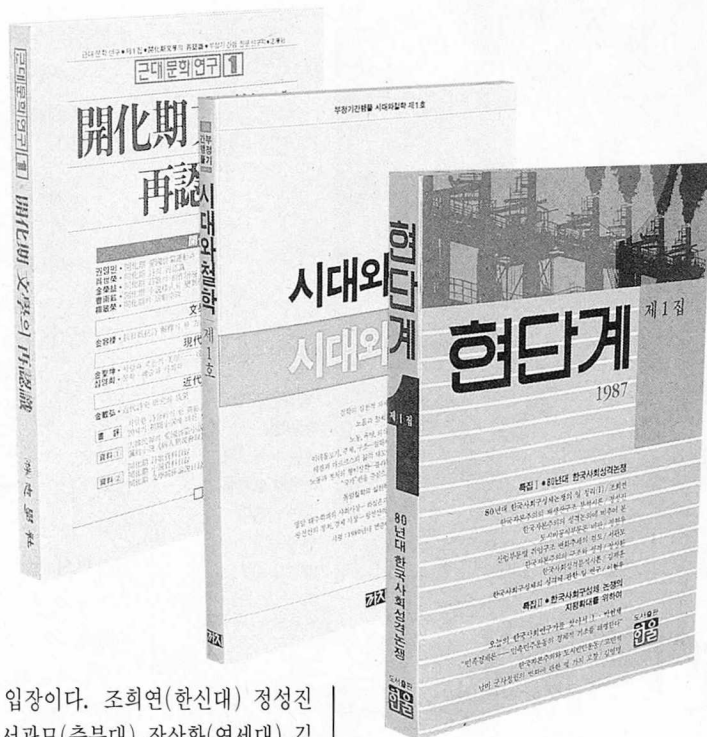
「현단계」 1집은 한국사회의 성격과 그 구성체의 분석을 주로 30~40대 소장학자들의 예리한 시각을 통해 시도한 다소 이색적인 사회과학무크이다.

제1특집 「80년대 한국사회성격논쟁」과 제2특집 「한국사회구성체 논쟁의 지평확대를 위하여」가 책의 대부분의 분량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창간사에 밝힌 것처럼 「비판적 아카데미즘」의 새로운 입지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즉 1980년대 이후 보수적인 학계와 비제도권의 중간에 입지하여 양자간의 건전한 긴장관계 속에서 한국사회를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집단적 知的 노력의 주체를 「비판적 아카데미즘」이라 보고,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로 양극화된 의식부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이 무크의 창간 취지. 이에 따라 필자들은 한국사회에 대해 여러 흥미한 인식이 복합적으로 혼재하고 있는 80년대 중반인 현단계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실천적인 인식에 입각, 한국사회를 분

석한다는 입장이다. 조희연(한신대) 정성진(경상대) 서관모(충북대) 장상환(연세대) 김재훈(성균관대) 이현우 정현우 등 소장학자들의 논문을 통해 85년 朴玄採-李大根논쟁(국가독점자본주의론—주변부자본주의론)후에 확산되고 있는 한국사회구성체논쟁의 최근 동향과 쟁점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시대와 철학」은 철학부문에서는 최초로 나온 무크지로 학회지나 단편적인 논문집에 비해 무크다운 시의성과 의견주장을 담고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의 의도는 헤겔이 『본래 있는 것을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철학의 과제이다... 그러므로 또한 철학은 그 시대를 사상속에서 파악한 것이다』라고 했을 때의 의도와 연결되며 인간의 실천적 태도의 형성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 철학의 사회-경제적인 연



으로 무장한 채 지식인의 특권처럼 소유되어 왔던 철학을, 대중의 삶에 대한 인식과 스스로 사유하는 힘을 길러주는 쉬운 말과 글로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노동과 정치의 식, 동양철학의 실천적 재해석 등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노동, 욕망, 의식」(이훈) 「明末 태주학파의 사회사상—하심은과 이탁을 중심으로」(김수중) 「왕선산의 정치·경제사상」(이규성) 등 여섯 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이 두가지 무크는 최근에 지식인사회에 팽배해 있는 보수-혁신이론의 동향을 반영한 출판물들로 전문분야의 학문적 대립양상을 학자들 스스로 분석하려 했다는 점에서 同人誌 성격위주로 발간돼온 무크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움직임의 일환으로 역사문제연구소도 무크 「역사비평」을 연내에 발간한다. 19세기 「民」특집, 日帝史 등을 정성종 임현영 서중석 이이화 안병욱씨 등이 집필한다.

또 「근대문학연구」 1집으로 발간된 「開化期文學의 재인식」은 국문학자 金容稷교수(서울대)의 책임편집으로 개화기문학일반(권영민·서울대), 개화기詩(오세영·서울대), 詩歌(金榮喆·대구대), 소설양식(조남현·건국대), 연극공간(유민영·단국대) 등 분야별로 개화기문학의 재해석을 시도하는 다소 보수적인 문학무크.

개화기문학특집 외에 「항일저항시 해석의 한 방법」(김용직)을 비롯, 金聖坤(영문학·서울대) 심영희(사회학·한양대) 김재홍씨의 논문이 함께 실렸다.

자료로는 「大韓民報」의 애국계몽소설 소개와 거기 실린 풍자소설 「병인간첩회록」영인, 개화기 詩歌자료 목록, 개화기 소설자료 목록 등이 수록되어 있다.

— 정은교 기자

철학에세이  
**現實과 構想**  
新A5判. 401面/定價 4,000원  
前서울大 大學院長 朴鍾鴻 著  
來日을 向한 마음의 良識을 주다  
民族理念을 찾고 있는 이 나라의 知性人, 그 갈 바를 몰라 헤매는 젊은 知性들 여기 힘의 文章으로 엮어진 民族哲學은 우리를 마음의 良識이다. 여기에 來日을 向한 知性, 人間喪失과 人間發見, 學問에의 길 및 韓國의 思想을 적나라하게 펼쳤다.

圖書出版 博英社  
서울特別市 鍾路區 平洞 219 電話 733-6771~3

철학에세이  
**知性と 摸索**  
新A5判 406面/定價 4,500원  
前서울大 大學院長 朴鍾鴻 著  
새로운 삶의 可能性을 찾자  
韓國的 價値觀의 새로운 方向을 제시하였던 젊은이들에게 오늘의 사는 使命感과 著者의 지나온 발자취와 그 동안 만난 세계적인 哲學者들의 면모를 자세히 논술했으며 宗教的 斷想과 哲學의 課題 및 紀行과 餘談을 재미있게 서술하였다.

圖書出版 博英社  
서울特別市 鍾路區 平洞 219 電話 733-6771~3

철학에세이  
**韓國의 思想的 方向**  
新A5判 305面/定價 3,900원  
前서울大 大學院長 朴鍾鴻 著  
韓國에 近代의 思想의 推移를 논하다  
思想的인 의미에 있어서 封建的인 舊習을 탈피하려는 人間的인 自我覺醒에 중점을 두어 그와 관련된 몇 가지 事項이 近代의 性格을 띤 것이라고 보고 그 推移의 輪廓의 人 概要를 일별해서 包括的이고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近代의 思想을 서술하였다.

圖書出版 博英社  
서울特別市 鍾路區 平洞 219 電話 733-6771~3

철학에세이  
**自覺과 意慾**  
新A5判 400面/定價 4,400원  
前서울大 大學院長 朴鍾鴻 著  
우리 자신을 알고 자신의 길을 걷자  
人生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확고하지 못할 때 曠野의 정처없는 길을 헤매는 나 그나라고 할 수 있다. 주어진 制約을 용감하게 받아들여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의의있게 살려 적극적인 姿勢로 걸어갈 때 이것이 삶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人間의 生活과 思想을 논했다.

圖書出版 博英社  
서울特別市 鍾路區 平洞 219 電話 733-6771~3